

## 레이커스, 플레이 인 진출 빨간 불

시즌 전 LA레이커스는 강력한 우승후보 중 하나로 불렸다. 나이를 먹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녹슬지 않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와 리그 정상급 빅맨 앤서니 데이비스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트리플 더블 제조기 러셀 웨스트브룩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각자 한팀의 간판급으로 뛰던 선수들의 조합인 지라 빅3의 이름값만 놓고 보면 리그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 러셀 웨스트브룩, 사진=golfdigest.com

하는게 가능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즌 전 레이커스에 대해서는 '우승후보' 이기는 하지만 빅3 의존도를 얼마나 줄여가면서 경기를 펼칠 수 있느냐가 변수다'는 분석도 함께 뒤따랐다. '좋은 선수는 많을 수록 좋다'는 말처럼 웨스트브룩의 가세는 레이커스 원투펀치를 빅3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비력 좋은 백업 멤버들을 여럿

내보내야 했던지라 '플러스인지는 마이너스인지는 두 경을 열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았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레이커스는 지난 30일 데라스 매버릭스와 리그 원정경기에서 110-128로 패배하며 이날 현재 컨퍼런스 11위로 내려앉아 7위-10위까지의 팀이 겨루는 플레이 인 진출도 위태로워졌다.

물론 농구는 5명이 함께하는 팀 스포츠다. 거기에 장기레이스의 특성상 주전들을 받쳐줄 탄탄한 백업 멤버는 필수다. 플레이오프같은 단기전에서는 한두 명의 슈퍼스타만으로도 하드 캐리가 가능하지만 정규시즌은 다르다. 부상, 체력고갈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날 수 있다. 무엇보다 긴 정규시즌에서 일정 성적을 내야만이 우승의 관문인 플레이오프에 참여

## 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출전할까

타이거 우즈EPA 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의 4월 마스터스 복귀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우즈 본인은 마스터스 출전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 타이거 우즈, 사진=tennisworldusa.org

우승자에게 평생 출전권을 부여하는 마스터스의 출전자 명단에 우즈의 이름이 포함된 것도 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즈는 마스터스에서 5승을 거뒀다. 다만 언론은 "우즈가 마스터스 주최 측에 불참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일 뿐 명단에 있다고 출전한다는 뜻은 아니다." 라고 전했다.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의 코스 지형은 언덕이 많고 험한 것으로 유명해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우즈의 출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아들과 함께 참가했던 PNC 챔피언십에서 우즈는 카트를 타고 홀을 이동했다. 우즈가 오거스타에 온 것도 대회 전 열리는 이벤트 라운드인 '파3 콘테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다.

지난 3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전날 우즈가 마스터스 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18홀 연습 라운드를 치렀다며 마스터스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 시즌 PGA 투어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는 오는 4월 8일 개막한다.

보도에 따르면 우즈는 이날 전용기를 타고 아들 찰리와 함께 조지아주 오거스타에 도착해 저스틴 토머스(29·미국)와 함께 연습 라운드를 돌았다.

## 김하성, 시범경기 맹타 "훌륭한 선수 될 것"



▲ 김하성, 사진=tekdeeps.com

2021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은 그해 스프링 트레이닝 시범 경기에서 타율 0.167(42타수 7안타), 1타점, 1득점, 출루율 0.314에 그쳤다. 그리고 정규 리그에서도 타율 0.202, 8홈런에 머물렀다. 그러자 미국 언론 매체들은 김하성의 KBO에서의 기록이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시즌에서의 부진을 의식한 듯 김하성은 올 시즌 경기부터 방망이를 매섭게 돌리고 있다. 김하성은 지난 30일 현재 15타수 6안타 0.400의 타율에 출루율 0.500을 기록 중이다. OPS(출루율+장타율)는 0.967에 달한다. 몇 경기 하지 않았지만, 김하성의 배트 스피드는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하성은 현재 샌디에이고가 '미래의 유격수'로 키우고 있는 C.J. 아브람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하성은 올 시즌마저 부진할 경우 향후 기회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CBS스포츠는 최근 메이저리그 각 구단에서 올 시즌 두각을 드러낼 것 같은 선수 한 명씩 선정하며 샌디에이고에서는 김하성의 이름을 올렸다.

이 매체는 김하성에 대해 "화려한 수비수는 아니다. 하비에르 바에스(디트로이트 타이거스)처럼 한계를 뛰어 넘는 유격수도 아니다. 그럼에도 김하성은 좋은 기술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수비수"라고 소개했다. 또 "김하성은 메이저 리그 생활에 대해 적응했다. 타격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타격이 더 좋아진다면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